

## 정서조절을 통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서 변화\*

김 민 영<sup>†</sup>

계명대학교

한 규 은

서울시립대학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의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연구 1에서 연구자들은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녀 236명의 기질적 정서조절 정도를 측정 한 후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지는 정서(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나이, 성별, 우익권위주의, 적대적 귀인 편향 정도를 통제하였을 때 정서조절의 전략 중 하나인 인지적 재평가가 높은 동정심을, 또 다른 형태의 정서조절 전략인 정서억압이 낮은 동정심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억압은 또한 높은 적대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조절의 훈련을 한 후 정서조절이 다문화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정서 경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훈련 세션에는 총 87 명이 훈련 집단 또는 통제 집단에 참가하여 인지적 재평가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대조적으로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지시사항을 들었다. 참가자는 훈련 직후와 그 후 두 달간 한 달 간격으로 총 3회차에 걸쳐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서를 보고하였다. 3회차에 걸친 정서의 변화를 개인 내 변인으로 하고, 훈련 여부를 개인 간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선형 모델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훈련 집단(n = 27)의 동정심 평균이 통제 집단(n = 27)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차에 따른 동정심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연구 1과 2의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 집단에 대한 개인의 정서 변화에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이 다양한 정서 중 동정심 변화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집단 갈등, 다문화 집단, 이주민, 정서조절, 정서, 인지적 재평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927290).

† 교신저자: 김민영,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5430, E-mail: mkim@kmu.ac.kr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 은 158만 명을 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다문화 가족 자녀도 급증하여 그 수는 2007년 4만4천여 명에서 2015년에는 20만 8,000여 명으로 약 다섯 배 증가했다. 현재 국내 초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은 다문화 학생인 셈이다. 합법적 취업상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5월 기준 83만 4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8). 다문화 이주민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을 일컬으며, 박영숙, Glenn(2015)은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민이 2050년에는 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 세계 60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선호도를 조사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2015)'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다문화 거주민에게 가진 반감이 미국, 독일,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사실은 사회 갈등 및 사회 분열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양계민(2010)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어 사회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태도와 정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하나(2016)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위협을 인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본 바 있고, Sugimoto(2016)가 한국 내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김도영 외(2011)가 한국인으로서의 집단 정체성과 편견적 태도에 대해서 각각 알아본 바 있으나 정서적 측면에 관해서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파악하고 외국

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 정서의 변화를 유도하여 심리적 개입에 대해 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 사회 갈등과 정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부정 정서는 어떻게 감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크게 사회적 조절과 개인적 조절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조절이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Sherif(1966)의 현실갈등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갈등이론은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유발됨에 따라 경쟁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 태도가 유발되어 편견이 생기게 된다는 이론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단순 노동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자국 내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바는 현실갈등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Coenders, Lunners, & Scheepers, 2003).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 하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의 감소를 위한 방안에는 경제전문가들이 경제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 정책을 찾는 것, 정치가들이 복지 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개인적 조절이란 개인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심리적 상태 또는 행동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효율적인 경제체제와 훌륭한 복지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적 조절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로서 Druckman와 McDermott(2008)가 제안하는 것은 정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Halperin이란 학자는 GB News(2016)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갈등이 존재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서 요인만 없었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 요인은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언급하며 부정 정서가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 해소를 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다양한 정서 중에서 집단 갈등과 관련이 있는 정서는 적대감, 분노, 두려움 등이다(Bar-Tal Halperin, & de Rivera, 2007; Capelos & Van Troost, 2007).

해외의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부정 정서로 인해 사회 갈등이 유지 또는 강화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Volkan, 1997; Peterson, 2002; Staub, 2005). 부정 정서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심화시키고, 다른 사람 역시 갈등에 참여하도록 조장하여 갈등의 확대를 이끌기도 한다(Bar-Tal, Halperin, & de Rivera, 2007). 구체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 두려움, 증오 등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편협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Halperin 등(2009)이 이스라엘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자료에 의하면, 분노나 두려움의 감정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hatred)을 매개로 정치적 편협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간의 집단 갈등에 대해 연구한 Spanovic 등(2010)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분노와 두려움의 정서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넘어서 높은 공격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Halperin (2011)은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대상 집단에 해를 끼치고 말살하는 군사적 대응까지도 지지하게 했는데, 이는 Lerner와 Keltner(2001)가 제시한바 분노와 증오가 그 집단을 향한 심각한 군사적 공격의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낮게 평가하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집단 갈등을 일으키는 정서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다문화 이주민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 정서조절과 태도변화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가 그 집단에 대한 공격적 태도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지지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정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형성, 유지, 및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 변화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중 하나는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이다. 정서조절은 개인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변화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정신적 과정 전체를 말한다(Gross, 1998). 이 과정에는 상황 인식, 주의조절, 상황 평가, 정서 반응 등이 포함되어 있다(Gross & Thompson, 2007).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목표하는 정서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서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이다(Gross, 1998).

인지적 재평가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상황으로부터 유발된 정서 경험을 바꾸는 것이다. 인지적 재평가는 부정 정서와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긴장을 낮춘다. 인지적 재평가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낮은 수준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며 (Jackson, Malmstadt, Larson, & Davidson, 2000), 인지적 재평가를 하였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분노 경험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다(Ray, Wilhelm, & Gross, 2008). 또한, 사람들은 인지적 재평가를 할 때 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Barlett & Anderson, 2011), 협상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도출시키며 갈등이 있으면 동의를 더 잘 끌어냈다(Sokol-Hessner et al., 2009).

인지적 재평가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조절된 부정 정서가 집단 간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소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분쟁

과 같이 장기적인 집단 간 갈등에 대해 더 관용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였고(Halperin et al., 2013), 인지적 재평가를 약 20분간 연습한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정치적 편협성이 낮았다(Halperin, Pliskin, Saguy, Liberman, & Gross, 2014). 이러한 효과는 기존에 가졌던 정치적 신념이나 경제적 위치, 종교 등을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하였으며, 실제 정치적 분쟁(2012년 팔레스타인 UN 독립국 승인 가입 사건)이 일어나기 전 1주일과 5개월 후의 이스라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추적 조사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lperin, Porat, Tamir, & Gross, 2013).

인지적 재평가와 상반되는 개념은 정서억압(emotion suppression)이다. 정서억압은 정서를 조절하려는 인지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정서적 표현을 하지 않으려는 정서 전략을 의미한다(Gross, 1998). 예를 들어, 화가 났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화가 났다는 티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표면적인 정서 반응만을 조절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정서억압을 부적절한 정서조절 방식 또는 성공적이지 못한 정서조절로 표현한다(Haga, Kraft, & Corby, 2009).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서억압은 조직 행동, 수행, 직무만족도, 그리고 신체적 증상과 부적인 관련을 보였다(Gross, 2002; Gross, Richards, & John, 2006; Haga, Kraft, & Corby, 2009; Rottenberg & Gross 2003). 따라서 정서억압의 경우 인지적 재평가와 반대로 집단 간 태도 및 정서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정서조절을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적절한 정서조절을 유도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본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는 어렵다. 먼저, 기존 연구가 이루어졌던 국가와 한국은 문화적 측면에서 다르다. Halperin 등(2013)과 Spanovic 등(2010)의 연구의 경우 이스라엘과 세르비아에서

이루어졌으며, Haga 등(2009)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이루어져 동양 문화권에서 정서 조절을 통해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가 감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특히 한국은 과거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시기가 서양 문화권에 비해 기므로 정서조절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연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경우 문화권 차이뿐만 아니라 갈등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어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의 독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Halperin(2013)과 Spanovic 등(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에 관하여 연구된 부분이 제한적이었기에 정서적 측면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들은 분노와 두려움 등 부정적인 정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정심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 Diener와 Emmons(1984)에 의하면 부정 정서가 감소한다고 해서 긍정 정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정서조절이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 각각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조절에서도 인지적 재평가에 초점이 두어(예, Halperin, Pliskin, Saguy, Liberman, & Gross, 2014), 인지적 재평가와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 억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이주민에 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정서적 경험을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를 포함하여 알아보고, 인지적 재평가와 함께 정서 억압의 경향성이 정서 경험과 가지는 관계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로서 동정심으로 포함하였다. Baron(1984)의 연구에 따르면 동정심은 반대의 관점을 지닌 상대방에 대해 더 나은 인상을 받게 하고, 갈등 상황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동정심의 정서가 다문화 이주민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다문화 집단 중 2017년 기준 전체의 68.1%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정서 경험과 정서조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설문 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서 요인 외에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인지적 성향이 적대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으므로, 정서 요인의 고유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성향은 통제하였다. 먼저 정치적 요인으로는 우익권위주의 성향을 들 수 있다. 우익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 Altemeyer, 1996)은 개인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지 나타내 주는 정도로, 기존의 정서조절과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익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의 정치 참정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alperin, Porat, Tamir, & Gross, 2013; Lerner & Keltner, 2001).

개인의 인지적 성향으로는 귀인 성향을 들 수 있다. 집단 간 단순한 접촉을 경험한 개인이 위협을 느낄 때 개인은 상대 집단에 대해 더욱 큰 반감을 품게 되는데(Allport, 1954), Simons 등(2006)에 의하면 이때 위협 지각을 일으키는 것에 적대적 귀인 성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 성향 역시 정서조절 전략 외에 부정 정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그 외에 나이와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가설 1-1: 개인의 인지적 재평가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높은 긍정 정서와 낮은 부정

정서를 예측할 것이다.

가설 1-2: 개인의 정서억압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낮은 긍정 정서와 높은 부정 정서를 예측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236명이었으며, 남자가 103명(43.6%)으로, 여자가 112명(47.5%), 무응답 21명(8.9%)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38.82세(SD=11.15)로, 20대 50명(22.3%), 30대 43명(19.2%), 40대 58명(25.9%), 50대 53명(23.7%)이었으며, 21명(8.9%)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89명(37.7%)이며, 계약직 및 일용직(프리랜서 포함)은 26명(11.1%)이었고, 121명(51.2%)은 응답하지 않았다.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5,000원을 받았다. 연구는 자료수집 대행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 절차 및 측정 도구

설문 응답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측정 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정서는 Halperin 등(2011)의 연구에서 집단 갈등과 관련하여 분노, 적대감, 두려움을 단일 문항으로 알아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분노, 적대감, 두려움의 세 가지 정서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인 동정심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의 정서를 보고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은 '당신이 다문화 노동자(한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

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정서에 대하여 느껴지는 정도를 각각 표시하였다.

정서조절 전략 파악을 위해서는 Gross와 John (2003)이 개발하였고, 한선화(2006)가 번안한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재평가의 예시 문항은 “나는 부정적인 정서(슬픔이나 노여움)를 덜 느끼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 “나는 내가 속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나의 정서를 통제합니다.” 등이며, 해당 여섯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704였다. 정서 억압 예시 문항은, “나는 나의 정서를 표출하길 꺼린다.”, “나는 정서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서를 통제합니다.” 등이며, 해당 네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676였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개정된 우익권위주의 척도(Rattazzi et al., 2007) 중 권위주의적 공격과 복종요인 총 열 문항을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극단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저지하고, 악을 없애는 일을 할 강력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나 종교의 권위자들을 비판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쓸데없는 의심만을 만들어낼 뿐이다.”가 있다. 원척도는 영문으로서,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된 척도를 먼저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로 번역한 문항에 대한 역 번역을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미국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였다. 그 후 영어에 능숙한 사람 두 명에게 원문 척도와 역 번역한 척도의 문항의 유사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두 척도의 유사성은 평균 4.55로 보고되었다. 역 번역한 척도와 원문 척도의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어 본 연구에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완성된 한국어본 우익권위주의 척도 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본 연구에서 .890이었다.

개인의 사회적 성향은 Michel 등(2014)이 개발한 공격성에 대한 믿음과 태도 척도 중 적대적

귀인 편향을 측정에 관한 하위문항 5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친근함은 종종 적대적인 의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욕구로 동기화된다.”가 있다. 본 척도 역시 우익권위주의 척도와 마찬가지로 역 번역의 과정을 거쳐 원문 척도와 유사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척도의 유사성은 평균 4.7로 보고되었다. 완성된 한국어본 적대적 귀인 편향 척도와 원문 척도의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어 본 연구에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완성된 한국어본 적대적 귀인 편향 척도 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35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나이와 성별을 표시하게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적절한 정서조절로 여겨지는 정서억압을 많이 할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 $r = .269$ )과 분노( $r = .273$ )가 높고, 성공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는 인지적 재평가를 많이 할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정심( $r = .267$ )과 두려움( $r = .136$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재평가를 많이 할수록 두려움이 크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의 방향과 반대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우익권위주의는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억압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정서 경험의 예측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네 개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에서 나이, 성별, 우익권위주의, 적대적 귀인 편향 정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단계 1에 나이, 성별(남=0, 여=1), 우익권위주의 척도 점수, 적대적 귀인 편향 점수를 입력하였으며, 단계 2에서 인지적 재평가, 정서 억압을 예측 변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연구 1)

변인	M(SD)	1	2	3	4	5	6	7	8	9
1. 나이	20.68(0.70)	-								
2. 성별(남=0, 여=1)	0.59(0.49)	-.078	-							
3. 우익권위주의	5.51(1.47)	.057	-.059	-						
4. 적대적 귀인 성향	3.99(1.26)	.085	.036	.144*	-					
5. 인지적 재평가	4.61(0.72)	.048	.049	.158*	.144**	-				
6. 정서 억압	4.45(0.94)	.140*	-.218**	.262**	.407**	.243**	-			
7. 동정심	-	.067	-.210**	-.034	.041	.267**	-.037	-		
8. 두려움	-	.126	.069	.077	.181**	.136*	.098	.334**	-	
9. 적대감	-	.045	.017	.157*	.289**	.047	.269**	.129	.567**	-
10. 분노	-	.174*	-.083	.243**	.373**	.087	.273**	.056	.379**	.714**

주. \* $p < .05$ , \*\* $p < .01$ .

인으로 포함해 단계 2의 추가증분도의 유의미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정서 중 동정심과 두려움을 예측할 때 정서조절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정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성별( $\beta = -.238, p < .001$ ) 외에 인지적 재평가( $\beta = .306, p < .001$ ), 정서 억압( $\beta = -.188, p < .05$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때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억압을 포함한 단계 2의 추가증분도는 유의미했다( $\Delta R^2 = .098, p < .001$ ). 이는 적응적으로 여겨지는 인지적 재평가로 정서조절을 하는 것은 높은 동정심을 잘 설명하며, 부적응적 전략으로 여겨지는 정서 억압을 하는 것은 낮은 동정심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적대성 귀인( $\beta = .198, p < .05$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에 더하여 정서 억압( $\beta = .202, p < .01$ )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 때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억압을 포함한 단계 2의 추가증분도는 유의미했다( $\Delta R^2 = .030, p < .05$ ). 이는 부적응적으로 여겨지는 정서 억압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가

표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정심을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연구 1)

	$\beta$	$t$	$R^2$	$\Delta R^2$
종속 변인: 동정심				
나이	0.049	0.728	.052	.052**
성별	-0.209	-3.074***		
우익권위주의	-0.076	-1.025		
적대적 귀인 편향	0.059	0.790		
나이	0.55	0.842	.150	.098***
성별	-0.238	-3.595***		
우익권위주의	-0.094	-1.315		
적대적 귀인 편향	0.101	1.333		
인지적 재평가	0.306	4.592***		
정서 억압	-0.188	-2.518*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지는 높은 적대감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두려움과 분노의 정서는 인지적 재평가나 정서 억압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인

표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연구 1)

	$\beta$	$t$	$R^2$	$\Delta R^2$
중속 변인: 적대감				
나이	0.024	0.362	.086	.086**
성별	0.032	0.484		
우익권위주의	0.045	0.616		
적대적 귀인 편향	0.269	3.683***		
통제 변인				
나이	0.008	0.124	.116	.030*
성별	0.071	1.052		
우익권위주의	0.029	0.399		
적대적 귀인 편향	0.198	2.574*		
인지적 재평가	-0.031	-0.460		
정서 억압	0.202	2.66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지적 재평가를 많이 할수록 두려움이 높다는 예상치 못한 정적 상관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회귀분석에서 나이, 성별, 우익권위주의, 적대적 귀인 성향을 통제한 후에 인지적 재평가가 두려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을 할수록 부정 정서의 수준이 낮다는 가설 1-1과 정서억압을 통한 정서조절을 할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 정서 수준이 높다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설문을 통해 발견한 연구 1의 결과를 일상 상황 맥락에서 재검증하고, 정서조절의 양상에 영향을 받는 정서 변화에 대한 인과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서에 국한하지 않고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범죄자를 포함하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다문화 이

주민에 대한 정서 경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2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훈련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정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때, 훈련의 효과가 한 달 이상 지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총 두 달간 2회의 추적 설문을 하였으며,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정서 변화를 중속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인지적 재평가를 훈련한 집단의 경우 통제 집단보다 다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의 수준이 낮고 긍정 정서의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 훈련의 영향은 2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2-1: 정서조절의 한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를 훈련한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다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의 수준이 낮고 긍정 정서의 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2: 정서조절의 한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 훈련의 효과는 2개월간 지속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연구 2에는 만 19세 이상 남녀 대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총 87명이 훈련 집단( $n = 49$ )과 통제 집단( $n = 38$ )에 무작위 배분되었다. 훈련 집단에는 남자가 22명(44.9%), 여자가 27명(55.1%)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2.84세( $SD = 2.11$ )이었다. 통제 집단에는 남자가 7명(18.4%), 여자가 31명(81.6%)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2.74세( $SD = 2.18$ )이었다. 참가자는 생활 속 정서에 관한 연구라고 소개를 받은 후 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6,5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받았다. 훈련 세션 후 2회에 걸친 온라인 설문에 모두 참여한 참가자는 총 훈련 집단 27명, 통제 집단 27명으로 탈락률은 38%였다.



연구 절차

연구 2는 크게 훈련 세션과 온라인 설문 응답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훈련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에 대해 훈련을 받거나(훈련 집단), 받지 않게 된다(통제 집단).

훈련은 Halperin 등(2013)에서 실시된 훈련 프로토콜을 모방하여 사용하였으며 훈련 집단 전체가 모여 일회적으로 실시되었다. 훈련은 정서 조절에 대한 설명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서 조절에 대한 설명은 연구보조자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내용에는 인지적 재평가란 무엇인지와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의 과정이 어떤가가 포함되었다. 그 후 실험 참가자는 연구보조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연구보조자에게 질문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연구보조자가 응답하였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연구보조자는 빔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정서 유발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사진은 중립정서를 일으키는 사진 1가지(아이스크림 포장지), 부정정서를 일으키는 사진 4가지(아동학대, 문지마 살인 피의자, 총기 난사 사진, 광주민주화운동 중 부상 장면)로 구성되었다. 연구보조자는 정서 유발 상황을 사진을 하나씩 약 1분간 제시하였으며 그 후 약 30초간 실제로 정서조절을 연습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통제 집단에서 연구보조자는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에 대한 설명 없이 실험 참가자에게 총 다섯 장의 사진 자극을 제시하였다. 이 사진은 실험 집단에 제시한 사진과 같았으며, 사진이 제시된 시간은 각 사진당 1분씩이었다. 사진을 제시한 후, 연구보조자는 실험참가자에게 약 30초간 느껴지는 정서가 무엇이든 그 정서를 그대로 경험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진별로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총 5장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훈련(또는 무 훈련) 세션이 끝난 후 두 집단의 모든 참가자는 약 15분간 외국인 노동자 포함

한국 내 다문화 이주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약 300글자 내외의 뉴스 기사 중 하나를 읽고 그 후 경험되는 정서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리고 평소 정서조절 전략 사용 정도와 우익권위주의 척도, 적대적 귀인 편향 척도, 나이, 성별 등의 개인차 정보에 대해 답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은 후속 세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하였다.

훈련 후 이루어진 후속 세션은 한 달 간격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추적 설문으로, 두 달간 총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실험 보조자는 훈련 후 한 달이 지난 후 후속 세션에 참여를 원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발송하였다(1차 추적 설문). 그로부터 한 달 후 전체 참가자에게 2차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발송하여, 한 달 간격으로 총 두 달간 두 번의 후속 설문을 하였다. 온라인 설문에는 지난 한 달간 다문화 이주민과 직, 간접적 접촉기회 여부와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훈련 세션 포함 총 3회에 걸친 설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고유번호를 개인별로 만들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를 통합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 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정서 측정은 총 3번 이루어졌다. 훈련 세션 중 이루어진 1차 측정에서 실험참가자는 다문화 이주민에 관한 신문 기사 3개 중 하나를 랜덤하게 읽도록 요청되었다. 기사는 사진과 함께 한글 공백 포함 약 270~300자의 길이로 제시되었으며 인터넷 뉴스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이자스민씨의 국회 입성에 관한 인종차별적인 말과 공격에 관한 기사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국내 기피 업종의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게 변한다는 기사, 그리고 오원춘의 토막살인에 관한 기사이다. 그 후 기사에 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결혼 이주민,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느끼는 정서(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2, 3차 측정의 경우 다문화 이주민에 관한 기사를 제시하지 않고, 참가자 개인이 일상생활 중 다문화 이주민과 직,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를 표시하게 하였다. 직, 간접적인 접촉 경험을 묻는 방법은 류승아(2017)에도 사용된 방법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한 상황 또는 접한 정보가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 범죄자 중 어떤 것 또는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 범죄자 각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를 모두 보고하였다. 직접적 접촉에 대한 질문은“최근 한 달간 다문화 집단의 구성원과 직접 만나 대화한 경험이 있습니까?”이었으며, 간접적 접촉에 대한 질문은 “다문화 집단에 대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TV 프로그램 시청이나 다문화 집단에 관한 캠페인 참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이었다.

요약하면,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1차 정서 측정은 실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훈련 직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범죄자에 관한 기사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제시한 후 이를 읽고 경험하게 되는 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를 보고하며, 2차와 3차 정서 측정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 범죄자에 각각 대한 정서를 모두 보고하게 하여 각 정서의 평균으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서 값을 사용하였다(예,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동정심=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정심, 결혼 이주민에 대한 동정심,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동정심 값의 평균).

정서, 정서조절, 우익권위주의 척도, 적대적 귀인 편향 척도는 연구 1에서와 같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나이와 성별을 표시하게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 전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처치 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차 변인의 집단 간 변인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지적 재평가(훈련 집단:  $M = 4.40$ ,  $SD = 0.96$ ; 통제 집단:  $M = 4.48$ ,  $SD = 0.86$ ), 정서 억압(훈련 집단:  $M = 3.52$ ,  $SD = 1.39$ ; 통제 집단  $M = 3.09$ ,  $SD = 1.01$ ) 우익권위주의(훈련 집단:  $M = 3.30$ ,  $SD = .84$ ; 통제 집단:  $M = 3.67$ ,  $SD = 1.00$ ), 적대적 귀인 편향(훈련 집단:  $M = 3.17$ ,  $SD = 1.08$ ; 통제 집단:  $M = 3.37$ ;  $SD = 1.03$ ) 수준에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훈련 전 두 집단은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특성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훈련 후 두 회에 걸쳐 실시된 온라인 설문에서 모든 참가자는 지난 한 달간 다문화 집단의 구성원과 직접 만나 대화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추가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TV프로그램 시청, 캠페인 참여 등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하였다. 그 결과 직접 만나거나 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전체 54명 중 53명으로(98.15%) 대부분의 참가자가 일상생활에서 다문화 이주민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되었다 할 수 있다.

훈련 직후(1회차)와 후속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 온라인 설문(2, 3회차)을 합하여 총 3회차에 걸쳐 측정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서 변화는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소프트웨어는 SPS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집단이 회차에 따라 보고한 정서 경험의 정도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반복측정 자료는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ANOVA)의 방법으로도 분석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의 경우 매회 응답이 독립적 변인으로 취급되어 결측치가 있으면 해당 참가자 점수 전체가 분석에서 제외되게 된다 (Krueger & Tian, 2004). 그러나 혼합모델의 경우 해당 결측치 점수만 제외되며 나머지 회차의 점

표 4. 집단과 회차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정서 보고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2)

	훈련 집단				통제 집단			
	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	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
1차 측정	3.18(1.24)	2.55(1.23)	3.22(1.21)	3.27(1.17)	2.73(1.27)	2.81(1.31)	2.50(1.27)	3.66(1.21)
2차 측정	3.02(0.68)	3.10(0.73)	2.92(0.76)	2.65(0.74)	3.10(0.69)	3.29(0.71)	3.03(0.74)	2.87(0.80)
3차 측정	3.01(0.74)	2.96(0.56)	2.79(0.55)	2.53(1.46)	3.14(0.73)	3.17(0.67)	2.88(0.81)	2.83(0.6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수는 전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합모형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계적 선형 모형은 기울기와 절편 예측 모델(Intercepts- and Slopes-as-Outcomes Model)로서, 개인 내 변인으로 시간에 따른(훈련 직후: 1회차, 한 달 후: 2회차, 두 달 후: 3회차)에 보고된 개인의 정서(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를 종속 변인으로 입력하였고, 개인 간 변인으로 훈련을 받은 집단인지 아닌지를 입력하였다. 이 때, 나이와 성별은 통제하였다. 구체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개인 내 수준}) \text{ 정서}_{ij} = \beta_{0j} + \beta_{1j}(\text{회차}) + \epsilon_{ij} \\
 &(\text{개인 간 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나이}) + \gamma_{02}(\text{성별}) \\
 &\quad + \gamma_{03}(\text{집단}) + u_{0j} \\
 &\quad \beta_{1j} = \gamma_{10} + \gamma_{11}(\text{나이}) + \gamma_{12}(\text{성별}) \\
 &\quad + \gamma_{13}(\text{집단}) + u_{1j}
 \end{aligned}$$

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총 4개의 위계적 선형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은 변인의 수가 적으므로 최대 우도 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Hayes, 2006). 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각 정서 경험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 결과(연구 2)

	정서							
	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	
	<i>b</i>	<i>SE</i>	<i>b</i>	<i>SE</i>	<i>b</i>	<i>SE</i>	<i>b</i>	<i>SE</i>
고정 효과								
절편	3.763***	0.844	2.435	0.767**	1.611	0.809	2.671*	0.904
나이	-0.058	0.035	0.015	0.031	0.099**	0.034	0.060	0.038
성별(남성=0, 여성=1)	-0.311	0.173	-0.410*	0.155	-0.370*	0.168	-0.157	0.186
집단(훈련=1, 통제=2)	0.761*	0.380	-0.221	0.388	-0.270	0.368	-0.371	0.333
회차	0.195	0.114	0.178	0.116	-0.331**	0.111	-0.441***	0.104
집단 x 회차	-0.280	0.156	0.072	0.158	0.104	0.151	0.053	0.143
무선 효과								
잔차	0.375***	0.073	0.482***	0.092	0.449***	0.086	0.620***	0.111
집단 기울기	0.250**	0.089	0.222	0.091	0.187*	0.087	0.030	0.087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분석 결과 동정심의 경우, 집단의 주 효과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훈련 집단의 동정심이 통제 집단보다 0.76 더 높았다( $b = 0.761, SE = .380, p < .05$ ). 두려움, 적대감, 분노의 경우, 집단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훈련 집단의 동정심이 통제 집단보다 더 높으나, 분노, 두려움, 적대감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지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훈련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훈련 집단에서의 회차의 단순 주 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정심에 있어 회차의 단순 주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동정심에 있어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유지되었다거나 혹은 시간에 따른 동정심의 변화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대감( $b = -0.331, SE = .111, p < .01$ )과 분노( $b = -0.441, SE = .104, p < .001$ )의 경우 회차의 주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훈련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분노와 적대감의 정서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지적 재평가 훈련의 효과는 2개월간 지속할 것이라는 가설 2-2는 동정심에 있어 지지가 되며, 두려움, 적대감, 분노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는다. 집단과 회차의 상호작용은 동정심, 두려움, 적대감, 분노에 있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전략이 외국인 노동자(연구 1)와 다문화 이주민(연구 2)에 대한 정서와 가지는 관계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고, 2개월간의 추적연구를 통해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 훈련의 효과 및 지속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 1에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정서에 있어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억압 사용은 나이, 성별, 우익권위주의 정도와 적대적 귀인 편향의 수준을 통제하고도 유의미하게 정서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이 기

존에 가졌던 정치적 신념을 통제한 후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alperin et al., 2013). 또한, 연구 2에서 개입을 통해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 훈련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서조절 훈련을 거친 집단의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동정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차의 증가에 따른 동정심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 훈련이 5개월 후의 태도를 예측한다는 Halperin 등(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있다. 첫째, 태도가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갈등에 있어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며(e.g., Volkan, 1997), 더 나아가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역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동정심은 집단 갈등의 감소에 있어 중요한 정서로 제안됐다. 기질적 동정심은 개인 간 관계의 갈등 해결과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de Wied, Branje, & Meeus, 2007), 집단 간 갈등에서도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의 일원이 동정심을 표현하고, 신뢰가 높을 경우, 그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dler & Liviatan,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동정심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정서조절을 통해 동정심의 증가를 유도하여 다문화 이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러나 Halperin 등(2013)의 연구와는 달리 적대감과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에서 정서조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인지적 재평가에 대한 대상을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로 구분하여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Nezlek와 Kuppens(2008)의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를 구분하여 인지적 재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긍정 정서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는 긍정 정서 경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나, 부정 정서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는 긍정 정서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자극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에 대해 인지적 재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실험 참가자가 어떤 정서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재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전반적 정서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지시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정서에 대해 인지적 재평가를 하였을 때 부정정서 보다 긍정 정서의 조절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자 일반 정서와 자극 유발 정서를 모두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참가자 본인의 일반적인 정서를 보고하게 하였고, 연구 2에서는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직간접적 정보를 접한 후에 유발되는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정서조절이 동정심, 적대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2에서는 정서조절 훈련의 효과가 동정심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의 측정방법은 달랐지만, 연구 1과 2 모두에서 정서조절이 동정심과 관련을 가지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 정서조절과 다문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정서 경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정서 측정 방법을 도입하여(예, 정서의 생리학적 측정)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한다면 본 연구의 결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이다. 현재 다문화 집단과 관련된 사회 문제(예,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는 많은 부분 캠페인 혹은 인지적 교육으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모두 다르고, 모두 소중하고’라는 다문화 캠페인부터 최근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학술연구들은 다문화 관련 강의 수강의 영향을 알아본다(권이정, 2014; 황혜영, 전열어, 허정, 2015), 다양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손영희, 선은정, 조인제, 2017). 그러나 본 연구는 정보 중심이 아닌 정서적 접근을 취하여 개인의 심리상태 개선을 통한 사회 갈등 해소를 제안하고 있다.

정서적 접근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정서조절을 통한 집단 간 갈등 해소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다. 그동안 개인의 심리상태 개선을 위해 사용된 인지 행동 기반(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 심리 상담이나 마음 챙김 기법(Mindfulness training) 등은 주로 대면형식을 취하므로 전문가 지도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12회기를 기본으로 하기에 시간적 물질적 자원을 상당 수준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경우 1회의 훈련 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단기적 효과에 있어 높은 효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정서조절 훈련을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쉽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 가지 측정항 정서 중 동정심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두려움, 적대감, 분노 등은 일관적이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문화 집단과 관련된 부정 정서의 변화를 위한 정서조절 전략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 훈련의 기간(예, 일주일간 5회기 훈련 또는 한 달간 12회기 훈련)과 종류(예,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훈련과 외적 동기를 명확히 하는 훈련), 그리고 전략(예, 정서억압을 하는 통제 조건)을 다양화한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어떤 정서에 얼마간의 지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개월 이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의 간격을 다양화하여 훈련 효과의 지속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본에 대한 대표성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연구 1은 다양한 세대를 포함한 200명 이상의 성인이 참가하여 표본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조사연구이므로 더 많은 숫자의 응답자를 모집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두 달간 진행되는 추적 연구로써 어느 추적 연구와 같이 중간 탈락자들이 있어 최종 분석에서 집단 크기가 줄어들었다. 초기 실험 참가자 모집 시에는 각 집단에 할당된 참가자의 숫자가 대략 20~30%의 탈락률을 염두에 두고, 각 집단에 약 35명 정도가 남을 수 있도록 모집하였으나 이보다 높은 탈락률을 보여 결과적으로 각 집단에 27명의 참가자가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작은 크기로 인해 두려움, 적대감, 분노와 같은 정서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연구 2에서 훈련 집단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44.9%이었으나 통제 집단의 경우 18.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1, 2 모두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후 모든 분석을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이정 (2014). 수업 수강 여부에 따른 예비유아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39-63.
- 김도영, 이주연, 신희천, 김혜숙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5(2), 51~89.
-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1(4), 225~245
- 박영숙, Glenn, Jerome (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2050*,
- 손영희, 선은정, 조인제 (2017). 중·고등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교육문화연구*, 23(6), 715-748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정하나 (2016).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 83-112.
- 황혜영, 전열어, 허 정 (2015).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 106-115.
- 한선화 (2006). 청소년의 정서성과 정서조절 전략 및 자기통제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ugimoto, Maria (2016). 생산직 외국인노동자 유입 증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lett, C. P., & Anderson, C. A. (2011). Reappraising the situation and its impact on aggress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1564-1573.
- Baron, R. A. (1984). Reducing organizational conflict: An incompatible response approa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2), 272-279.
- Bar-Tal, D., Halperin, E., & de-Rivera, J. (2007). Collective emotions in conflict: Societal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63, 441-460.
- Capelos, T., & Van Troost, D. (2007). Reason passion

- and Islam: The impact of anger and fear on political tolerance.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Portland, OR
- Coenders, M., Lubbers, M., & Scheepers, P. (2005).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 *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Wien: EUMC.*
- De Wied, M., Branje, S. J., & Meeus, W. H. (2007).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in friendship relations among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3*(1), 48-55.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 Druckman, J., & McDermott, R. (2008). Emotion and the framing of risky choice. *Political Behavior, 30*, 297-321.
- GB News (2016, 2. 18). Emotions in conflict confronting perspectives in conflict transformation. <https://www.gbnews.ch/emotions-in-conflict-confronting-perspectives-in-conflict-transformation/>
- Gross, J. 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11-237.
- Gross, J. J. (2002).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3), 281-291.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Gross, J. J., Richards, J. M., & John, O. P. (2006). Emotion regulation in everyday life. In D. K. Snyder, J. A. Simpson, & J. N. Hughes (Eds.), *Emotion regulation in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pp. 13-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 J. J., & Thompson, R. A. (2007). Emotion regulation: Conceptual foundation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3-24).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ga, S. M., Kraft, P., & Corby, E. K. (2009). Emotion regulation: Antecedents and well-being outcomes of cognitive reappraisal and expressive suppression in cross-cultural sampl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3), 271-291.
- Halperin, E. (2011). Emotional barriers to peace: Negative emotions and public opinion about the peace process in the Middle Eas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17*, 22-45.
- Halperin, E., Canetti-Nisim, D., & Hirsch-Hoefler, S. (2009). The central role of group based hatred as an emotional antecedent of political intolerance: Evidence from Israel. *Political Psychology, 30*, 93-123.
- Halperin, E., Pliskin, R., Saguy, T., Liberman, V., & Gross, J. J. (2014). Emotion regulation and the cultivation of political tolerance: Searching for a new track for interven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8*, 1110-1138.
- Halperin, E., Porat, R., Tamir, M. & Gross, E. (2013). Can emotion regulation change political attitudes in intractable conflict? From the laboratory to the field. *Psychological Science, 24*, 106-111.
- Hayes, A. F. (2006). A primer on multilevel model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2*(4), 385-410.
- Jackson, D.C., Malmstadt, J.R., Larson, C.L., & Davidson, R.J. (2000). Suppression and enhancement of emotional responses to unpleasant pictures. *Psychophysiology, 37*, 515-522.
- Krueger, C., & Tian, L. (2004). A comparison of the

- general linear mixed model and repeated measures ANOVA using a dataset with multiple missing data points. *Biological research for nursing*, 8(2), 151-157.
- Lerner, J. S., & Keltner, D. (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46-159.
- Michel, J. S., Pace, V. L., Edun, A., Sawhney, E., & Thomas, J.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explicit aggressive beliefs and attitude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8(3), 327-338.
- Nadler, A., & Liviatan, I. (2006). Intergroup reconciliation: Effects of adversary's expressions of empathy, responsibility, and recipients' tru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 459-470.
- Nezlek, J. B., & Kuppens, P. (2008). Regulat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76(3), 561-580.
- Petersen, R. D. (2002). *Understanding ethnic violence: Fear, hatred, and resentment in twentieth-century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ttazzi, A. M. M., Bobbio, A., & Canova, L. (2007).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223-1234.
- Ray, R. D., Wilhelm, F. H., & Gross, J. J. (2008). All in the mind's eye? anger rumination and re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133-45.
- Rottenberg, J., & Gross, J. J. (2003). When emotion goes wrong: Realizing the promise of affective scienc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2), 227-232.
- Sherif, M. (1966). *In common predicament: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Houghton Mifflin comp.
- Simons, R., Simon, L., Burt, C. H., Drummund, H., Stewart, E., Brody, G., Gibbons, F., Cutrona, C. (2006). Supportive parenting moderates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upon anger, hostile view of relationships, and violence among African American boy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47, 374-389.
- Sokol-Hessner, P., Hsu, M., Curley, N. G., Delgado, M. R., Camerer, C. F., & Phelps, E. A. (2009). Thinking like a trader reduces individuals' loss aversion. *PNAS*, 106, 5035-5040.
- Spanovic, M., Lickel, B., Denson, T. F., & Petrovic, N. (2010). Fear and anger as predictors of motivation for intergroup aggression: Evidence from Serbia and Republika Srpska.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3, 725-739.
- Staub, E. (2005).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hate, with notes on prevention. In R. J. Sternberg (Ed.), *The psychology of hate* (pp. 51-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olkan, V. (1997). *Bloodlines: From ethnic pride to ethnic terrorism*.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World Value Survey (2015). Retrieved from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1 차원고접수 : 2018. 04. 12.  
수정원고접수 : 2018. 07. 03.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5.



## Emotion change toward multicultural immigrants through emotion regulation

**Min Young Kim**

Keimyung University

**Kyueun Han**

University of Seoul

In the era of multicultural society, one of the social issues in Korea is hatred toward immigrants. This study suggested emotion regulation as a way to resolve this issue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on changing emotions toward immigrants. In study 1, 236 participants completed online survey in which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ognitive reappraisal, emotion suppression) and emotional experiences (sympathy, fear, hostility, and anger) toward immigrant workers were asked. Results showed that when age, gender,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were controlled, sympathy was explained by cognitive reappraisal and emotion suppression. In addition, hostility was explained by emotion suppression. Study 2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raining on the change of emotional experience toward immigrants. In the training session, participants exercised cognitive reappraisal for 15 minutes upon the exposure to a series of emotion-eliciting pictures. Participants in control group were instructed to accept aroused emotions as it is for the same time amount of time. Participants completed three times of emotion ratings including post-training session (Time 1) and two times of online follow-up sessions for the following two months (Times 2 and 3). Results of hierarchical linear model, in which three times of emotion ratings are entered as within-person variables and group conditions as a between-person variable, showed that training group ( $n = 27$ ) reported higher sympathy than the control ( $n = 27$ ). The changing rate in the sympathy across times did not differ across groups. The results suggest the potential of short-term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training in reducing negative emotions toward immigrants in Korea.

*Key words* : Group conflict, multicultural group, immigrants, emotion regulation, emotion, cognitive reappraisal